

밴브러의 『재발』에 숨겨진 포핑턴 경의 이미지*

이병은

존 밴브러(John Vanbrugh 1664–1726)만큼 특이한 경력의 작가도 많지 않다. 후에 작가와 건축가로 명성을 떨쳤던 그는, 1686년경부터 영국의 비밀첩보원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1688년 오렌지공 윌리엄(William of Orange)을 영국으로 데려오는 임무를 수행하다 칼레(Calais)에서 프랑스 정부의 “조작된”(Downes 63–64) 혐의로 체포되었다. 1691년 칼레에서 뱅센(Vincennes)으로, 그리고 1692년 2월 바스티유(Bastille)로 옮겨졌고, 그해 11월에 정치범 교환 명목으로 석방되어 영국으로 돌아왔다(Beard 13). 그가 바스티유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프랑스 작가인 볼테르(Voltaire)¹ 같은 사람들은, 밴브러가 감옥 생활을 좋아했을 리는 없었겠지만 프랑스에 대한 적의는 적어도 없었다고 생각했다(Bingham 35–36). 또한 볼테르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도 없었고, 밴브러의 불만이나 적의에 대한 밴브러 자신이나 그 주변인물들의 사적인 기록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었다(Bingham 36). 하지만, 밴브러가 프랑스, 혹은 적어도 프랑스왕 루이 14세(Louis XIV)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¹ François-Marie Arouet. Voltaire는 펜 네임.

에 대한 적의를 가졌을 것이 확실한 정황은 분명히 있다. 밴브러가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어 4년 반이라는 긴 시간을 프랑스 감옥에 있었던 것은 루이 14세의 명령 때문이었다.² 그가 처음 칼레에서 체포되어 연금 당하기 시작하였을 때는 성 안에서는 활동할 수 있는 연금 상태였다. 루이 14세는 밴브러가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를 어느 정도 대접은 하되 “그가 영국인이니 그런 전폭적인 신뢰를 주어서는 안되니”³ 많은 자유를 주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Whistler 23). 뱅센으로 이송된 후 밴브러는 그가 받는 처분의 가혹함에 대하여 여러 장의 불만 청원을 루이 14세에게 보냈고, “국왕께서 이런 사소한 불만으로 더 이상 성가신 조름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내용의 프랑스 측 기록도 있다(Bingham 33). 루이 14세는 결국 그를 바스티유로 보내버렸고, 그곳에서 밴브러는 그 전에 그나마 누렸던 자유를 빼앗겼고 심한 대우를 받았다. 바스티유 말기 시절 쓴 편지에 “최근에 완전 탈진되었다”라고 쓴 기록이 이를 대변한다(Rosenberg 605). 밴브러의 전기 작가인 다운스(Kerry Downes)도 4년 반

2 이 무렵의 밴브러 일대기는 오랜 세월동안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았다. 그가 왜 체포되었고 얼마동안 구금되었는지에 관하여서는 잘못된 정보들이 상당히 많았다. 볼테르의 『영국인들에게 보내는 편지』(*Lettres sur les Anglais*)에 의하면, 밴브러는 “그가 왜 구금되었는지 전혀 몰랐다”(Bingham 31)고 주장하였지만, 프랑스 측의 주장대로 그는 스파이였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구금되었는지도 확실치 않다. 많은 밴브러 학자들이 그가 단지 1690년부터 1692년까지만 구금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다. 존 팔머(John Palmer)의 『풍속극』(*The Comedy of Manners*) 같은 비평서나, 『세계 극 사전』(*The Reader's Encyclopedia of World Drama*, edited by John Gassner and Edward Quinn), 『영국 작가들』(*British Writers*, edited by Ian Scott-Kilvert), 『옥스퍼드 영국 인명사전』(*Oxford 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 edited by Brian Harrison), 그리고 빙엄(Madeleine Bingham)의 『가면과 건물앞면』(*Masks and Facades: Sir John Vanbrugh, the Man in His Setting*)와 같은 저명한 책에서도 실수는 찾아진다. 밴브러가 4년간 구금되었다는 사실은 로젠버그(Albert Rosenberg)에 의하여 처음 발굴되었는데, 1692년 8월에 바스티유에서 그가 “거의 4년간”(near four years)이라고 쓴 기록을 찾아낸 것에 기인한다. 1966년에 로젠버그가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많은 책들에서 잘못된 정보를 적고 있다. 『옥스퍼드 영국문학 사전』(*Oxford Companion to English Literature*) 5판은 정확한 정보를 사용하고 있다.

3 “C'est un Anglais dans la parole duquel il ne faut pas prendre une confiance si entière.”

의 프랑스 감옥 생활이 그로 하여금 프랑스 정치인들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만들었을 것이라 적고 있다(76). 이 논문은 이러한 밴브리의 고생 후에 만들어진 그의 첫 번째 공연작인 『재발, 혹은 위기의 정숙』(*The Relapse, or Virtue in Danger*)에 등장하는 포핑턴경(Lord Foppington)에 주목한다. 풍자와 조롱의 대상인 포핑턴을 면밀히 살펴보면 태양왕(the Sun King)으로 불리웠던 루이 14세의 특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고, 이것은 그를 감옥에 넣었던 프랑스 왕에 대한 복수의 일환으로 해석하려는 것이 이 논문의 시도이다.

밴브리에게는 개인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애국적, 정치적으로 프랑스 왕 루이 14세를 풍자하고 비난할 여러 이유가 있었다. 먼저 영국인으로서 프랑스에 대한 적대감은 자연스럽게 있었을 것이다. 루이 14세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왕으로서 적어도 밴브리가 프랑스 감옥에서 지내던 시기의 10년 전부터 영국 왕실의 영광과 권위를 축소시켰다. 이 무렵이 루이 14세의 전성기였고, 처칠(Winston Churchill)에 의하면, 영국은 내분으로 유럽 사회에서 주요국이 되지 못했던 시절이었다(*World* 399). 루이 14세는 영국과 영국민들을 평가절하 시켰을 뿐만 아니라, 도버협약(Treaty of Dover)으로 영국의 찰스2세를 매수하여 영국의 대외 정책을 좌지우지하였다. 처칠은 영국 존왕(King John)이 영국을 교황의 영지로 만들었던 시대만큼의 상태였다고 당시를 평가한다(*World* 372). 도버협약은 존스(J. R. Jones)를 비롯한 대부분의 영국사학자로부터 영국의 심각한 손해를 끼친 매국적인 행위였다고 비난받는다(Churchill, *Revolution* 1836). 루이 14세는 찰스를 조종함으로써 자신의 영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였고 그만큼 영국의 위치는 땅에 떨어진 것이었다. 밴브리가 영국인으로서 루이 14세의 마키아벨리적인 행위를 풍자로 비난한 것은 자연스럽다고 봐야할 것이다.

밴브리는 또한 휘그(Whig) 당원이어서 정치적으로 루이 14세를 지지하기 어려웠다. 휘그당원들은 제임스 2세의 친프랑스적 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였고, 제임스 2세가 이들을 갖는다는 것은, 존스의 주장처럼, “권력이 친프랑스적인 전제주의적 세력에 의하여 독점되는 것이 확실해지고 ... 계속하여 프랑스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그들이 영원히 권력을 향유할 수 있는”(Churchill, *Revolution* 1837) 것이었다. 휘그당은 1688년 명예혁명을 지

지하였고, 제임스 2세는 왕좌에서 쫓겨나 프랑스로 도주하였다. 루이 14세는 제임스 2세와 그의 궁정식구들을 보호해주고 옹호해줌으로 영국에 대한 그의 적의를 보여주었다. 1689년에 루이 14세는 잘 훈련된 프랑스 군대와 관료들, 또한 많은 프랑스 무기들과 자금을 제임스 2세에게 제공하여 아일랜드 침공을 도와주었다. 1692년 제임스 2세가 결국 아일랜드에서 쫓겨났을 때도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일부 군사들은 영국을 공격하기 위하여 제임스 2세 주변에 머물렀다. 밴브러가 『재발』을 집필하고 있을 때도 루이 14세는 오렌지공 윌리엄을 영국의 왕으로 인정을 해야 하느냐로 고민하면서, 제임스 2세를 계속 보호해 주고 있었다. 이러한 프랑스왕의 태도는 밴브러와 휘그당에게 몹시 분노를 느끼게 만들었을 것이다.⁴

밴브러가 감옥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당시 겪는 고통뿐만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 점이었다. 투옥 말기의 편지에서, 감옥에서 알게 된 한 프랑스 귀족에 대한 연민이 이를 잘 나타낸다. “프랑스 왕 가정교사의 직속이었던 아버지를 둔 몰로트(Morlotte) 백작은 그 스스로 아주 명예로운 사람이었는데,” 반역죄로 기소되어 사형을 선고받고⁵ 9년째 “형편없는 동굴 같은 감방에 갇혀 아무도 볼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글도 쓸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걱정하고 있다(Rosenberg 605). 밴브러는 몰로트가 석방되지 않는다면 “남은 끔찍한 인생을 침울한 상태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고 적고 있다(Rosenberg 605). 당시 이런 처참한 상황은 흔치 않은 경우가 아니었다. 밴브러 연구자들은 밴브러가 청원을 계속하여 결국 포로 교환으로 석방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몰로트의 운명과 비슷하였을 것으로 판단한다. 올프

4 루이 14세는 제임스 2세의 죽음 이후에도 제임스 2세의 가족을 계속 돌봐 주었다. 1701년 스페인왕위전쟁 바로 전날, 루이 14세는 제임스 2세의 죽음을 지키면서 “나는 지금까지 당신에게 해온 것처럼 당신의 아들에게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아들을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왕으로 인정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Mitford 208). 이러한 태도는 전략적으로 루이 14세의 큰 실수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는 영국의 분노를 일으켜서, 스페인 왕위를 둘러싼 대륙의 전쟁에 참여를 꺼렸던 영국을 전쟁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5 나중에 몰로트는 종신형으로 감형되었지만 밴브러는 당시 알지 못하였다.

(John B. Wolf)는 “프랑스 국왕이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죄인을 바스티유나 다른 감옥으로 보낸 경우는, 결국 감옥에서 인생을 마치고 잊혀지는 경우가 많다”고 기록하고 있다(382). 밴브러의 석방을 위하여 노력한 친구들이 없었다면 밴브러도 바스티유에서 잊혀진 채 평생을 보냈을지도 모른다. 아마 밴브러를 감옥으로 보낸 사람도 그를 감옥에 보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을 수도 있었다. 이러한 밴브러 연구자들의 주장은 밴브러가 얼마나 처절하게 그의 고통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이 논문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밴브러가 『재발』을 집필하게 된 직접적 동기는 물론 씨버(Colley Cibber)의 『사랑의 마지막 묘책』(*Love's Last Shift*)이다. 밴브러의 『재발』은 당시 인기가 있었던 씨버의 감상극(sentimental play)의 일종의 속편이었다. 씨버 스스로 “밴브러는 좋아했던 극에서 힌트를 얻어 3개월이 안 되어... 우리에게 완성된 『재발』을 가져왔다”고 적고 있고(Cibber 121), 배우로 무대에 올라가길 좋아했던 씨버는 『재발』의 첫 공연부터 포핑턴의 역할로 무대에 섰다. 도브레(Bonamy Dobrée)는 바람기 있는 남편의 갑작스런 과천선이라는, 다소 비현실적인 씨버 극의 주제가 밴브러가 속편을 집필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사랑의 마지막 묘책』의 내용은 방종한 남편을 정숙한 부인이 8년간의 결별 후에 갑자기 교정시키는 것인데, “밴브러가 경험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여러 관계로 미루어 보아 (씨버 극의 주제는) 실제로 일어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 주장한다(Dobrée 67-68). 그리하여 남녀간의 문제를 비교적 현실적인 것으로 그리고 있는 『재발』이 집필되었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런 『재발』의 집필 이유를 반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재발』의 집필 동기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빙엄(Madeleine Bingham)은 밴브러가 “사람의 완벽한 개선을 믿지 않고, 오히려 남자나 여자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생각으로 『재발』을 썼다고 말하면서, “『사랑의 마지막 묘책』에서 밴브러의 상상력을 자극한 것은 패션경(Sir Fashion)이었다”라고 주장한다(51). 빙엄의 주장은 밴브러를 집필로 이끈 것은 러브레스(Loveless)나 아만다(Amanda) 같은 주인공들이 아니라, 패션, 즉 포핑턴이라는 것이다. 포핑턴은 밴브러가 씨버의 극에서

가져온 몇 안되는 등장인물 중 하나이다.⁶ 그는 물론 멋쟁이(fop) 등장인물의 전통에서 나온 인물이다.⁷ 멋쟁이들은 모두 자신의 외모에 신경쓰고, 예의(manners)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멋진 남성(great beau)으로 보여지길 원하고, 그들의 단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특성을 가진다. 씨버의 멋쟁이 등장인물들도 이러한 전통적인 인물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고, 작가 자신의 등장인물(Dramatis Personae) 소개에서 패션을 “가장 멋있는 척하고 싶은 멋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아마도 작가는 에서리지(George Etherege)의 『유행의 사나이』(*The Man of Mode*)에서 도리만트(Dorimant)에 의하여 “최신 멋쟁이의 패션”(1.1.417)이라고 표현된 플러터경(Sir Fopling Flutter)을 모델로 패션을 그렸을 것이다.

이 논문이 제기하는 초점은 왜 밴브러가 씨버의 많은 등장인물 중 하필 패션을 그의 작품에 가져와서 좀 다른 캐릭터, 즉 포핑턴으로 변화시켰는가 하는 점이고, 몇 가지 이유를 추정해 본다. 씨버의 패션은⁸ 당시 인기를 얻었고 그를 다시 무대에 등장시키는 것은 흥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씨버에게서 가져온 다른 캐릭터들은 성격에 변화가 없는데, 왜 패션/포핑턴에게는 여러 변화를 주었을까하는 질문은 의미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작가의 진정한 집필 의도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밴브러는 패션을 두어 단계 높은 귀족(Lord Foppington)의 반열에 올려 놓았다. 또한 포핑턴에게 패션보다 자신을 잘 인식하는 능력을 부여함으로 전통적인 멋쟁이 캐릭터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즉, 단순하고, 바보스럽게 멋쟁이처럼 보이고만 싶어 하는 패션에서, 나름 문제해결 능력도 있고, 남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있고, 신분 상승에 따른 예절도 아는 포핑턴이 만들어졌다. 신

6 씨버에서 가져온 다른 등장인물은 러브레스(Loveless), 워씨(Worthy), 아만다(Amanda)이다.

7 후주무라(Thomas Fujimura)는 전설적 등장인물들, 플러터경(Sir Fopling Flutter), 대퍼윗(Dapperwit), 스파키쉬(Sparkish), 노블(Novel), 브리스크(Brisk), 태틀(Tattle), 윗우드(Witwoud), 패션경, 포핑턴경(Lord Foppington) 등을 잘 정리하였다(37-39).

8 패션경이 특히나 무대에서 많은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직 연기력이 부족한 작가 씨버 자신이 출연하기 위해서라는 주장도 있다.

분은 높지만 여러 단점으로 사람들의 비웃음의 대상이 된 캐릭터를 만든 이유는 그의 풍자 대상이 그 시대 상류사회의 정점에 이른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실 많은 비평가들이 포핑턴에 호평을 하고 밴브리의 작가적 역량을 높게 평가한다. 해즐릿(William Hazlitt)은, 비록 그가 에서리지의 포플링 플러터를 더 선호하긴 하지만, 포핑턴은 “아주 뛰어난 캐리커처(caricature)이고 . . . 진지한 이성을 우스꽝스러운 과시로 폭발시킨 인물이라 평한다(82). 페리(Henry Ten Eyck Perry)는 포핑턴의 캐릭터를 분석하면서 “희극 천재성이 활짝 피어났다”고 표현하면서 “영국 희극의 신사 중 가장 출중하다”고 극찬하고 있다(94). 휘슬러(Laurence Whistler)도 “물론 모든 신사들 중 영원한 왕은 포핑턴경 노블티”라고 평한다(33). 뮈슈키(Paul Mueschke)와 플라이셔(Jeannette Fleisher)도 “왕정복고 희극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멋쟁이고 . . . 오리지널하고 아주 성공적인 극 인물”이라고 표현한다(857). 버코위츠(Gerald M. Berkowitz)도 포핑턴 전의 캐릭터들과 비교하면서 포핑턴의 위트와 인지능력이 뛰어나다고 강조한다.

비평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도, 포핑턴은 왕정복고 시절 멋쟁이들 중 새로운 부류로, 유행에도 뛰어날 뿐 아니라 자신을 잘 인지하고 위트도 있는 멋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왜 밴브리가 패션을 포핑턴으로 많이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어 보인다. 더욱이 포핑턴과 루이 14세의 관계를 조명하여 보는 시도는 없다. 하지만, 루이 14세의 널리 알려진 특징들과 당시 루이 14세를 둘러싸고 있는 시대 상황과 인물들을 염두에 두고 『재발』을 분석하여보면, 두 인물 사이의 공통점과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루이 14세가 자랑스러워하면서 만든, 당시에 유럽 전체에 화제가 되었던 베르사유(Versailles) 궁전의 유리의 방(Hall of Mirrors)에 대한 패러디를 보면 밴브리의 풍자 대상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루이 14세가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여 지은 베르사유 궁전은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홍보한 유리의 방으로 특히 유명했다. 유명한 건축가이기도 했던 밴브리에게는 유리의 방과 같은 건축물들이 아마 더 풍자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1막3장에서 포핑턴은 구두공, 복장재단사, 셔츠제작자, 재봉사, 이발사 등

을 불러서 상류귀족들처럼 자신을 치장하면서, 자신은 유리를 아주 좋아한다면서 시종에게 자신의 방에 유리를 사방에 설치하라고 명령한다. “아! 근데 우리 하인들을 시켜 내가 나의 앞뒤 모습을 다 볼 수 있도록 유리를 많이 배치시켜줘. 나는 내 모습을 돌아가면서 다 보는 것을 좋아하니까”(Ay, but let my people dispose the glasses so, that I may see myself before and behind; for I love to see myself all raund; 1.3.36-38). 2막에서도 그는 두 여주인공 아만다(Amanda)와 베린시아(Berinthia) 앞에서 자신의 갤러리를 책과 거울로 채워놓았다고 자랑을 하면서 거울에 대한 애착을 드러낸다. “저는 그것에 금박을 입히고 예쁘게 배치시키고 . . . 그것들 사이에서 걷고 쳐다보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일이지요”(I have gilded them, and rang'd 'em, so prettily . . . it is the most entertaining thing in the world to walk and look upon 'em; 2.1.244-47). 또한 같은 막에서 허영심 가득 찬 포핑턴은 초콜릿 하우스를 좋아한다면서, 그 이유가 그곳 사방에 배치되어 있는 유리거울로 자신을 비쳐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날씨가 나쁘면요, 저는 초콜릿 하우스로 가죠. 그곳에 가면은, 마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당신을 빙 둘러싼 거울들이 있으니까요”(If it be nasty weather, I take a turn in the chocolate-hause, where, as you walk, Madam, you have the prettiest prospect in the world; you have looking-glasses all round you; 2.1.276-79). 포핑턴의 대사에 나타난 작가의 의도는 분명하다. 당시 루이 14세의 평판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루이 14세 자신, 특히 그의 허영에 날카로운 비난을 가하는 것이다.

“태양왕”(Le Roi Soleil)이라는 루이 14세의 별칭을 이용한 조롱도 있다. 태양왕이라는 찬사는 그가 태어났을 때 만들어진 기념주화에 각인된 “프랑스에 떠오른 태양”(Orbus Solis Gallici)이라는 글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재위 내내 태양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미화하려 하였다. 물론 이러한 비교는 과거 로마 시저(Caesar)가 태양과 자신을 동일시하려 하였고, 이집트 파라오가 태양의 신인 라(Ra), 레(Re) 혹은 여기사 파생된 로이(roi)로 불려진 것을 모방하였을 것이다. 루이 14세 연구가인 울프(John B. Wolf)는 베르사유의 “많은 행사, 연회장, 발레 무용, 장식, 불꽃놀이 등이 끊임없이 태양의 상징성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고 한

것을 보면 루이 14세가 태양왕이라 불리는 것을 아주 좋아했음엔 틀림없다(269). 벤브러가 태양왕이란 별칭을 이용하여 루이 14세와 포핑턴을 동일선상에 올려놓은 것은, 1막3장에서 포핑턴이 가발공인 포탑(Foretap)에게 가발을 맞추면서 “내 옆얼굴은 아마 일식 중인 것 같아, 내 정면 얼굴은 보름달 같은데”(My side-face may be in eclipse for aught I know; but I'm sure my full-face is like the full-moon; 1.3.164-65)라고 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또한 3막 1장에서 포핑턴이 결투에서 상처를 입었지만 다시 상류사회로 돌아가기를 원하면서 “내가 비록 마음에 상처를 입은 만큼 몸에도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내일 일식되어지진 않을 거야”(I would not be in eclipse another day, though I had as many wounds in my guts as I have had in my heart; 3.1.15-17)라면서 자신을 계속 태양과 동일시하고 있다. 자신을 태양으로 비유하며 일식을 언급하는 것은 흔히 있는 비유는 아니며, 특히 반복적인 같은 비유는 관객들의 주목을 이끌어 낸다.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포핑턴의 비유는 루이 14세에 대한 익살스러운 조롱일 수밖에 없다.

포핑턴과 루이 14세의 연결고리는 계속 나타난다. 당시의 관객들에게 가장 흥미롭게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은 루이 14세가 겁쟁이라고 영국민이나 프랑스인들에게 소문이 났다는 점이다.⁹ 루이 14세와 대척점에 있었던 생시몽(Henri de Saint-Simon)과 몇몇 귀족들의 후원을 받는 프랑스왕궁의 전기작가들은 루이 14세가 겁쟁이라고 은근히 선전하였고, 영국인들은 그것을 사실로 믿었다. 『재발』 2막 1장에서 포핑턴은 아만다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하고 손을 잡으며 유혹하려 하자, 남편 러브레스(Loveless)가 그 광경을 보고 칼을 뽑는다. 둘은 결투를 하고

9 사실 당시 사람들의 루이 14세에 대한 견해, 특히 생시몽(Saint-Simon)과 몇몇 귀족들의 견해는 다소 과장되거나 잘못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0세기의 비평가들은 생시몽측 주장의 증거들을 분석한 후, 생시몽은 루이 14세에 대한 반감 때문에 객관적으로 글을 쓰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루이 14세의 전기작가인 올프는 “생시몽이 그가 무엇을 쓰고 있는지 제대로 몰랐다”라고 하고(472), 밋포드(Nancy Mitford)도 “공포라는 것은 루이 14세의 천성에 없었다”라고 쓴다(21). 특히 루이 14세가 돌팔이 같은 의사에게 마취제 없이 치루 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루이 14세가 겁쟁이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지만, 벤브러나 영국 관객들은 루이 14세가 겁쟁이라고 믿고 싶었을 것이다.

곧 포핑턴은 약한 상처(“a little trick between the skin and the ribs”; 2.1.431)를 입는데 마치 중상을 입은 것처럼 겁을 먹고 행동한다: “아! 몸을 깊숙이 관통해서 치명적으로 찔렸다”(Ah, quite through the body, stap my vitals; 2.1.393). 의사 서린지(Serringe)가 도착하자 “저는 죽은 사람이에요”(I’m a dead man; 2.1.410)라고 말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처럼 행동하여 관객들에게 웃음을 준다. 5막 5장에서 동생 톰(Tom) 패션이 형 포핑턴인 척하면서, 형과 결혼하려했던 호이든(Hoyden)과 먼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호이든의 아버지 클럼지경(Sir Tunbelly Clumsey)이 톰을 가해하려고 덤벼든다. 포핑턴은 클럼지를 자제시키면서 다소 상황에 맞지 않는 듯 보이는 발언을 한다. “전투는 엉망이 되었네요. 우리 군사들을 전투에 참여시키려면 용기가 아니라 올바른 행동이 더 필요합니다”(the battle is in disorder, but requires more canduct than courage to rally our forces; 5.5.230–32). 이는 이왕 동생 톰이 호이든과 결혼을 해버렸으니 상황을 올바르게 바로잡으려면, 톰과 싸움을 하려는 용기는 필요 없고 상황을 잘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도의 대사이다. 여기서 포핑턴은 용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을 완전히 속인 동생과의 싸움에 뛰어들지 못하는 그 자신을 변호한다. 그러나,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이 대사는 루이 14세가 수많은 전쟁을 치루면서 사실 자신은 전투에 직접 참여한 경험은 없고, 다만 군사들 앞에서 자신을 모습을 보여주고 연설만 함으로써 군사들을 전투로 독려하려 하였던 점을 비꼬는 것이다. 즉, 루이 14세와 포핑턴의 용기 없음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사가 루이 14세에 대한 비난임을 당시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인들은 쉽게 눈치채고 웃어버릴 것을 뻔뻔하는 알고 썼을 것이다.

루이 14세과 포핑턴의 유사점은 각자가 받은 형평 없는 의료진에도 있다. 루이 14세는 76세라는 당시로 보면 장수한 왕이었으나 그의 왕궁의 의사들은 무능력으로 악명이 높았다. 루이 14세가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죽기 4년 전까지 그의 건강과 치료를 기록한 『왕의 건강 일지』(*Journal of the King*)가 있다. 이 책에는 특히 그가 고통을 겪었던 육체적, 정신적 병들과 그것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된 약제와 수술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왕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

이다. 올프는 이런 의사들을 조롱하면서 “신이 숙련된 의사들을 통하여 왕의 생명을 위하여 힘을 썼다. 결국 신의 도움으로 의사들은 항상 성공하였고 돈도 챙겨갔다”고 적고 있다(97). 루이 14세의 의사들은 구토제, 피 뽑기 등 끔찍한 치료를 하면서도 큰돈을 받아갔고, 이는 『재발』에서 의사 서린지가 포핑턴의 작은 상처에 패치를 해주고 생명을 구했다고 허풍을 떨며 돈을 챙겨가는 장면과 연결된다. 포핑턴이 자신에게 살아날 희망이 있냐고 묻자, 서린지는 “치료해 주면 얼마를 줄거냐?”(What are you willing to give for your cure?; 2.I.441-42)라고 묻는다. 500 파운드라는 거금을 지불하겠다는 포핑턴의 대답에 “그러면 아마 희망이 있을 것이다”(Why then perhaps there may be hopes; 2.I.444)라고 대답하는 장면에서 영국 관객들은 분명히 루이 14세를 떠올리며 웃었을 것이다. 두 사람 다 형편없는 치료에 거금을 주었기 때문이다.

루이 14세는 예술에는 큰 후원자였지만 서적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루이 14세는 “책에는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고 . . . 당시 사람들 혹은 과거의 사람들의 책에 시간을 할애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라고 올프는 기록하고 있다(56-57). 너무 많은 ‘중요한’ 일에 몰두하느라 항상 시간이 없는 두 사람의 공통점을 생각하면서, 루이 14세의 인지 능력은 포핑턴과 비슷하지 않겠냐하는 영국인들의 추론도 가능해 보인다. 루이 14세와 마찬가지로 포핑턴도 많은 책들이 있는 도서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책을 읽지 않는다. 포핑턴의 서재에 있는 많은 멋진 책들을 보면서 독서를 좋아하냐고 아만다가 묻자, 포핑턴은 “오! 열정적으로 좋아하죠 부인. 그러나 제가 읽은 것을 생각하지는 않죠”(Oh, passionately, madam, but I never think of what I read; 2.I.233-34)라고 꺾변을 늘어놓는다. 아만다가 자신은 멋진 서재도 좋아하지만 “책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한다”(but 'tis, I think, the inside of a book should recommend it most to us; 2.I.249-50)고 하자, 포핑턴은 당당하게 자신은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내 생각에 책의 내용이란 남들의 뇌가 억지로 만들어 낸 것으로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Far to my mind the inside of a book is to entertain one's self with the forced product of another man's brain; 2.I.252-54)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즐거움이나 교육을 얻는 것보다 포핑턴 자신만의 생각을

따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나타내면서, 역시 자존심이 강한 루이 14세를 연상케 하고 있다.

루이 14세는 또한 거의 군대 시계처럼 아주 정확한 일정으로 하루를 뿔뿔하게 보내는 것으로 유명했다. 밋포드(Nancy Mitford)에 의하면 루이 14세는 “그의 습관은 매우 정확하고 규칙적이어서 . . . 그가 몇 시에 무엇을 하고 있는 지를 세계 어디에 있던지 마치 시계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알 수 있었다고 한다(98). 포핑턴도 루이 14세처럼 매우 정확하고 규칙적이어서 하루를 시간 단위로 쓴다고 스스로 주장한다. 2막 1장에서 그는 잠, 음주, 식사, 극장가기 뿐만 아니라 여러 일정을 세세히 시간 별로 설명하는데, 울프가 보여주는 루이 14세의 시간표와 상당히 유사하다(90). 울프에 의하면, 당시 여러 사람들의 회고록을 종합하면 루이 14세의 시간표는 “공부, 운동, 사냥, 그리고 한두 가지의 여흥”으로 짜여져 있었다고 한다(73-102). 프랑스에서 오래 있었고 루이 14세에게 여러 청원을 한 적이 있는 밴브러는 루이 14세의 규칙적인 시간표에 관하여 여러 통로로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많다. 루이 14세는 항상 한 명 이상의 귀족들이 보좌하고 있어서 그의 비밀스러운 행동들까지도 알려진 경우가 많았다(Wolf 73-102). 포핑턴이 “나의 은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항상 다른 유흥거리의 시간에서 쪼개어 만듭니다. 얼마나 급한 일이냐에 따라서요”(as to time for my Intrigues, I usually make Detachments of it from my other Pleasures, according to the Exigency; 2.1.302-04)라고 언급한 부분도 루이 14세의 은밀하고도 복잡한 사생활을 공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또 다른 두 사람의 공통점은 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잘 통제하여 역경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자질이다. 루이 14세의 경우에는 물론 그가 왕으로써 신하들 앞에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하여 그의 강건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노튼(Lucy Norton)은 이런 루이 14세의 성향에 대하여 “그는 모든 슬픔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굳건함을 유지했다 . . . 그는 강철 같은 남자였다”라고 적고 있다(142). 포핑턴의 경우에는 곤경에 처했을 때도 편안한 표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객들은 그의 이런 위선적 행동에 웃음을 보낼 것이다. 『재발』의 마지막 부분에서 남동생에 의하여 그의 신부를 빼

앗겼을 때 포핑턴은 방백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가식적 행동을 한다.

내 생각엔 남자가 가슴 아플 때 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평화로운 표정을 짓는 것이다. 철학적인 태도가 위대한 인물에게 세상에서 제일 잘 어울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나는 위대한 인물처럼 내 수치를 감내하고, 사람들에게 나는 모욕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여야겠어.

I think the wisest thing a man can do with an aching heart, is to put on a serene countenance; for a philosophical air is the most becoming thing in the world to the face of a person of quality; I will therefore bear my disgrace like a great man, and let the people see I am above an affront.
(5.5.300-06)

루이 14세와 포핑턴의 유사점은 동성애자라는 흥미로운 인물에서도 찾을 수 있다. 포핑턴을 부잣집 여식 호이든과 결혼시키려는 제안을 하였다가, 이를 변경하고 그의 동생 톰을 대신 중매를 서준 동성애자 중매쟁이 커플러(Coupler)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성애에 관한 주제나 등장인물은 왕정복고기나 18세기 초의 연극에서는 결코 흔한 경우는 아니었고, 또한 오르비스(David L. Orvis)¹⁰가 언급하듯 그 시대의 영국사회에는 분명한 반동성애 정서가 아직 남아있었다(140). 예를 들어 17, 18세기 극 문선집인 『드라이든에서 셰리단까지의 영국 극작가』(*British Dramatists from Dryden to Sheridan*)에 실린 당대의 대표작 25편에서 찾을 수 있는 동성애자의 등장은 오토웨이(Thomas Otway)의 『지켜진 베니스』(*Venice Preserv'd*)에 나오는 부패한 상원의원 안토니오(Antonio)의 경우가 유일하다. 이렇듯 당시 연극계에 동성애자의 등장이 거의 금기시되어있을 때, 프랑스 왕가, 특히 루이 14세의 동생 필립(Phillipe)의 동성애 스캔들을 연상시킬 수 있는 대사나 인물은 영국 관객들에게는 쉽게 연상되고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였을 것이다. 1막 3장에서 톰 패션에게 커플러가 등장했을 때 다소 뜬금없이 커플러

10 오르비스는 18세기 초의 영국사회는 반동성애적 반감이 분명히 있었으나, 밴브러의 『재발』에서 커플러를 통하여 보여지듯 극장 관객들에게는 동성애자들이 괴물들은 아니라는 정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은 오르비스 주장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오르비스는 톰 패션의 커플러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그가 톰이 커플러에게 도움을 받기 전과 후의 변화에 대하여 언급을 안 한다.

의 동성애가 등장하며, 톰은 그를 마치 벌레 대하듯 비난한다. “대낮에 늙은 커플러가 아직 살아서 나타나네! 이 중매쟁이야, 어떻게 당신은 세상을 결혼으로 오염시키면서 아직도 살아서 여기 있을 수 있지? 이 늙은 포주야.”(By this light, old Coupler alive still! Why, how now, matchmaker, art thou here still to plague the world with matrimony? You old bawd; 1.3.216-18). 커플러는 이런 모욕에 능숙하게 대응하면서 “가슴 한번 만져보자”(let me put my hand into your bosom; 1.3.224-25)면서 동성애를 드러낸다. 손 치우지 않으면 코를 뭉개버리겠다고 펄펄 뛰면서 톰은 커플러를 동성애자로 부르며 모욕한다. “가까이 오지 마, 늙은 남색아!”(Stand off, old Sodom; 1.3.226). 하지만 커플러의 동성애적 능청스러움은 계속된다. “자, 수줍어하지 말고”(pr’ythee now don’t be so coy; 1.3.227). 이렇게 비난하던 톰이 커플러와의 거래가 잘 이루어지자, “아이고! 늙은 아빠, 내가 이젠 당신 가슴을 만져야겠어요”(I’gad, old dad, I’ll put my hand in thy bosom now; 1.3.321-22)라고 하면서 오히려 능청을 떨고 커플러는 그를 키스로 반긴다. 물론 톰 패션까지 완전한 동성애자로 만들면 분명한 루이 14세 일가에 대한 비난이 되겠지만, 전체 극의 포핑턴 주제가 너무 벗어남으로 뱅브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커플러의 독특한 행동은 루이 14세의 동생 필립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고 할 수 있겠다.

포핑턴과 루이 14세의 초상화를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수 있다. 물론 그림에 대한 느낌은 주관적이지만 분명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낄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 『재발』의 공연 때 씨버가 포핑턴의 복장을 한 초상화와 리고(Hyacinthe Rigaud)가 그린 유명한 루이 14세의 초상화와 비교해 보면 재미있는 점이 발견된다. 물론 당시 유행에 민감한 영국이나 프랑스 귀족들의 화려한 옷과 장신구를 고려하면, 두 인물들의 가발, 섬유, 레이스 등 유사한 스타일을 가진 것은 당연하겠다. 하지만 턱을 다소 과장되게 들고 미소를 머금은, 그리고 거만한 듯 보일 수도 있는 얼굴 표정은 루이 14세의 초상화와 많이 유사하다. 이는 당시의 영국의 귀족들이나 왕들, 예를 들어 제임스 2세나 윌리엄 3세의 초상화와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하다. 영국 왕들의 초상화는, 물론 화려한 의상을 입었지만, 대부분 근엄하거나 인자한 자태와 표정을 만들고 있고, 턱을 들어 거만해 보



① Cibber as Foppington

② James II

③ William III

④ ⑤ Louis XIV

일 수 있는 자세는 없다. 당시 프랑스 귀족의 옷 스타일이나 태도를 모방하려는 영국 귀족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루이 14세는 영국인들에게 아주 격식 있고 인공적인 매너의 상징처럼 여겨져 많은 평범한 영국인들에게 반감을 일으켰던 것도 사실이다. 포핑턴이 귀족의 지위를 돈으로 산 후, 평범한 경칭(sir)을 사용한 시종을 야단치면서 “각하”(My lord)라고 부르라고 하고, 독백으로 “각하! 포핑턴 각하!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정말로!”(Your lordship! My Lord Foppington! *c'est quelque chose de beau, que le diable m'emporte*; 1.3.14-15)라고 프랑스어로 말하는 장면에서는 분명 프랑스에 대한, 특히 루이 14세에 대한 조롱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따금 포핑턴이 사용하는 프랑스어는 관객들의 조소를 이끌어 냈었을 것이다. 당시 영국 관객들은 포핑턴의 복장이나 태도에서 프랑스 귀족의 대표인 루이 14세의 이미지를 쉽게 연상하고 작가나 배우의 풍자 대상과 의도를 알아차렸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밴브러는 평생을 극작가만의 삶을 산 것이 아니고 항상 정치 일선에 있어 왔기에 그의 작품은 그의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설탕사업으로 경제력도 있던 무관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밴브러는 먼 친척이었던 헌팅던 백작(Earl of Huntingdon)의 소개로 장교로 임관되며, 영국의 정치세계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밴브러가 윌리엄 3세와 연결되어 프랑스에서 스파이로 체포된 것은, 아직도 제임스 2세를 영국의 왕으로 세우고 싶어하는 루이 14세의 미움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프랑스 감옥생활 동안 그의 석방을 위하여 영국의 여러 귀족 관료들이 노력하였고, 영국에 잡혀 있는 프랑스 스파이와 정치적 교환을 하려고 시도한 점을 살펴보면 밴브러가 양국 정치에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McCormick, "Imprisonment" 58-60). 또한 맥코믹(Frank McCormick)이 주장하듯이, 밴브러는 프랑스 감옥에 있을 때에 루이 14세에게 잘 보여 감옥에서 나오려는 노력으로 자신이 자코바이트(Jacobite)라고 거짓말을 했었다. 루이 14세를 속이려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뒤집는 척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Jacobite" 61). 영국에 오자마자 그는 해군에 입대하여 프랑스의 브레스트(Brest)를 공격하는 데 가담하였다. 군에서 제대 이후 런던에서 극작가 생활을 하면서 그는 휘그당원으로서 킷캣클럽(Kit-Cat Club)의 주요 회원으로 활동한다. 유명한 이 클럽에서 그는 말버러 공작(Duke of Marlborough), 서머셋 공작 시모어(Charles Seymour, Duke of Somerset), 후에 총리가 된 월폴(Robert Walpole), 무관인 템플(Richard Temple, Viscount Cobham) 등과 어울렸고, 이들로부터 당대 최고의 건축가 중 한명으로 성장하는데¹¹ 큰 도움을 받았다. 프랑스와는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려 하였던 킷캣클럽은 그 기원이 1688년 명예혁명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다운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킷캣클럽의 회원들은 윌리엄을 영국으로 데려오는데 당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1688년부터 윌리엄을 위하여 비밀첩보원 역할을 하였던 밴브러는 전부터 킷캣클럽 회원들과 긴밀한 사이였을 가능성이 높고, 프랑스 감옥에서 돌아온 그

11 건축가 밴브러가 남긴 건축물 중의 하나가 말버러 공작의 저택으로 지어진 유명한 블레넘 궁전(Blenheim Palace)이다.

가 클럽의 환영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은 쉽다. 즉, 밴브러의 프랑스, 그리고 루이 14세에 대한 적의는 그의 젊은 시절부터 존재했다는 것은 확실하고, 그의 적의가 작품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재발』은 작가 밴브러 스스로가 씨버의 『사랑의 마지막 묘책』의 속편이라고 명명한 대로 스토리는 씨버의 극에서 연장되었고, 씨버 극에서 가져온 주요 등장인물들의 성격은 변함이 없다. 다만 포핑턴만이 갑자기 작위를 사서 신분이 높은 귀족(lord)이 되었고, 극의 주제의 스토리와 거의 대등한 분량을 가진 부주제의 주인공이 되었다. 씨버의 극에서는 간간히 등장하면서 주제와는 동떨어진, 그리고 별 움직임도 없는 희극적 인물로만 그려졌던 패션이, 밴브러의 극에서는 5막의 마지막 5장을 꼭 채우면서 마지막 대사로 대단원을 장식하는 주요 인물로 발전하였다. 즉, 비교적 단순하게 자신의 외모에 무척 관심이 많고 특히 여성들에게 멋쟁이로 보이기를 원했던 씨버의 패션이 가장 비중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바뀌면서 프랑스 왕 루이 14세의 특징들이 그에게 투사되는 것임을 관객들은 쉽게 눈치챌 것이다. 즉, 베르사유 궁전 유리방의 패리디, 태양왕이라는 별칭의 풍자, 겁이 많은 성향, 형편없는 의사, 책에 대한 혐오, 아주 계획적인 하루 일정, 자기 통제의 엄격함, 동성애에 대한 풍자 등 관객들의 폭소를 자아내는 모든 포핑턴의 특징들이 루이 14세의 잘 알려진 성격과 특징과 동일하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의 희극적 포인트는 결코 아닐 것이다. 또한 스테이브스(Susan Staves)가 언급하였듯이, 당시 멋쟁이 신사들은 단지 극장에서만 등장한 것은 아니고 실제 사회의 한 현상이어서 당시의 극작가 뿐만 아니라 잡지 에세이나 팜플렛의 주제이기도 하였다(419). 왕정 복고기와 18세기의 작가들은 멋쟁이 신사들을 풍자하면서 특정인의 허영이나 비도덕성을 지적하곤 하였기에, 밴브러가 포핑턴을 이용하여 누구를 풍자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당시 영국인들에게는 힘들지 않았을 것이다. 영국민으로서의 애국심과 개인적인 앙금이 밴브러로 하여금 적절한 복수의 펜을, 한때 그의 감옥 간수였던 태양왕에게 사용한 것이다.

주제어: 루이 14세, 제임스 2세, 콜리 씨버, 포핑턴, 풍자

인용문헌

- Beard, Geoffery. *The Work of John Vanbrugh*. Batsford, 1986.
- Berkowitz, Gerald M. *Sir John Vanbrugh and the Conventions of Restoration Comedy*. Rodopi, 1981.
- Bingham, Madeleine. *Masks and Facades: Sir John Vanbrugh, the Man in His Setting*. George Allen and Unwin, 1974.
- Churchill, Winston S. *The Age of Revolution*. Dodd, 1957. Vol. 3 of *A History of the English-Speaking Peoples*.
- _____. *The New World*. Dodd, 1957. Vol. 2 of *A History of the English-Speaking Peoples*.
- Cibber, Colley. *An Apology for the Life of Colley Cibber*. Edited by B. R. S. Fore, Michigan UP, 1968.
- _____. *Colley Cibber: Three Sentimental Comedies*. Edited by Maureen Sullivan, Yale UP, 1973.
- Dobrée, Bonamy. *Essays in Biography: 1680–1726*. Oxford UP, 1925.
- Downes, Kerry. *Sir John Vanbrugh: A Biography*. Sidgwick and Jackson, 1987.
- Etherege, Sir George. *The Man of Mode; or, Sir Fopling Flutter*. *British Dramatists from Dryden to Sheridan*, edited by George H. Nettleton et al., 2nd ed., Southern Illinois UP, 1969, pp. 153–95.
- Fujimura, Thomas H. *The Restoration Comedy of Wit*. Princeton UP, 1952.
- Gassner, John, and Edward Quinn, editors. *The Reader's Encyclopedia of World Drama*. Crowell, 1969.
- Harrison, Brian, editor. *Oxford 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 Oxford UP, 2004. 60 vols.
- Hazlitt, William. *Lectures on the Comic Writers*. Edited by P. P. Howe, J. M. Dent and Sons, 1931.
- McCormick, Frank. "The Jacobite Reference in Vanbrugh's *Relapse*." *Notes and Queries*, vol. 29, 1982, p. 61.
- _____. "Vanbrugh's Imprisonment in France: More Light." *Notes and Queries*, vol. 29, 1982, pp. 57–61.

- Mitford, Nancy. *The Sun King: Louis XIV at Versailles*. Harper and Row, 1966.
- Mueschke, Paul, and Jeannette Fleisher. "A Re-evaluation of Vanbrugh." *PMLA*, vol. 49, no. 3, 1934, pp. 848-89.
- Norton, Lucy. *The Sun King and His Loves*. Hamish Hamilton, 1983.
- Orvis, David L. "'Old Sodom' and 'Dear Dad': Vanbrugh's Celebration of the Sodomitical Subject in *The Relapse*." *Journal of Homosexuality*, vol. 57, 2010, pp. 140-62.
- Palmer, John. *The Comedy of Manners*. G. Bell and Sons, 1913.
- Perry, Henry Ten Eyck. *The Comic Spirit in Restoration Drama*. Russell and Russell, 1962.
- Rosenberg, Albert. "New Light on Vanbrugh." *Philological Quarterly*, vol. 43, no. 3, 1966, pp. 603-13.
- Scott-Kilvert, Ian, editor. *British Writers*. Scribner's, 1981. 11 vols.
- Staves, Susan. "A Few Kind Words for the Fop."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1500-1900*, vol. 22, no. 3, 1982, pp. 413-28.
- Vanbrugh, Sir John. *The Relapse; or Virtue in Danger*. *British Dramatists from Dryden to Sheridan*, edited by George H. Nettleton et al., Southern Illinois UP, 1969, pp. 257-305.
- Whistler, Laurence. *Sir John Vanbrugh: Architect and Dramatist*. Macmillan, 1939.
- Wolf, John B. *Louis XIV*. Norton, 1968.

Abstract

The Hidden Images of Lord Foppington in Vanbrugh's *The Relapse*

Byung-Eun LEE
Hansung University

John Vanbrugh had some reasons to hate and satirize Louis XIV. As an Englishman, he would have held a natural antipathy towards Louis. Vanbrugh was a Whig who had resented James II's pro-French attitude, while Louis sheltered and backed James. Moreover, Vanbrugh was arrested on the order of Louis and held in prison from 1688 to 1692.

This paper argues that, in *The Relapse*, Vanbrugh provides Foppington with a number of Louis's traits, and allusions to people and events in Louis's life to connect between the two. For example, Louis's Hall of Mirrors at Versailles is ridiculed through a stinging accusation of Foppington's vanity, and Louis's designation of *Le Roi Soleil* is compared with Foppington's eclipse statements. To the contemporary audience, Louis's physical cowardice, wretched doctors, disdain for books, rigidly structured day, and an admirable degree of self-control would have been easily recognized in Foppington.

Key Words

Louis XIV, James II, Colley Cibber, Foppington, Satire

이병은 (단독연구)
한성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교수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bear@hansung.ac.kr

Submitted, 17 Nov. 2021

Review Completed, 1 Dec. 2021

Accepted, 13 Dec. 2021

www.kci.go.kr